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

## 김 여사 대외활동 즉각 중단·인적 개편도 촉구 “대통령·영부인 브로커 소통, 국민께 죄송한 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

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온 만의 입장 표명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야권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면 돌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

련해 3대 조치(대의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이날 메시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목으로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

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차원에서 담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이 막겠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다. 그 뻔히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 ‘금투세 폐지’ 중도공약 가속

### 李, 장외집회와 별개로 ‘먹사니즘’ 행보 주력 ‘유예’ 아닌 ‘폐지’ 결론...대권과도 논쟁 차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웅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중도 공약 움직임에 더 속도를 붙였다.

당 대표 연임 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온 이 대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 문제에 있어 다시 한번 ‘우클릭’을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내에서 진보·개혁 성향의 원들을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시행론 목소리가 거셌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이

들의 여론 동향을 더 우선시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실제 먹고사는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잠정적 조치인 ‘유예’가 아닌 ‘폐지’로 결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대표가 대권주자다운 안정적인 모습을 부각해야만 정쟁에 지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9월과 지난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당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이어간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우클릭’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성향 지지자들이나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이 대표로서도 숙제가 될 수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조세 정의·정치 신뢰도 함께 폐지됐다”고 비판하는 등 같은 야권 내에서의 공세가 시작된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한 시장인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식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금투세 폐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 등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 온 정책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연합뉴스



‘시정연설 대독’하는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도 불참해 한 총리 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연합뉴스

## 尹 “4대 개혁·저출생 해결” 의지 밝혀

### 예산안 시정연설 첫 불참...김 여사 특검법 등 현안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

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설렘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성장 전환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규제 혁파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세일즈 외

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 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최근 지표 추세 반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인구 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 내일부터 3일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일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6-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일대에서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

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에서 광주시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미래도시 광주’를 주제로 첨단기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미래도시 광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전남도는 ‘지방시대의 시작, 기회의 땅 전남과 함께’를 주제로 전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홍보 콘텐츠를 구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월 광주’에 ‘미래교육’을 담다를 주제로 광주 교육발전특구 주요 정책을 홍보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K-에듀 전남교육이 열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200 미래교실 표현 및 전남교육발전특구 홍보에 나서게 된다.

/김진수기자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 (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 (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